

(설 화)

제 목 : 승가 상가 노인곡 이야기

제 보 자 : 이 성 근 (남. 당 82 세)

주 소 : 구리시 동구동 15

조사일시 : 1997. 12. 3. 이성근 가

내 용

엔날엔 참 한 선비 집이 있어서, 저 남산동여 근대 그 이조 이십일텐
가 그래니깐 숙종이죠, 그이가 밤 야수를 잘돌아요, 밤이면 백성들이
우떻게 사나하구 야수를 허는데 옷슬 번복을 허구 땡기죠 임금에 옷
슬 입구 땡김니까, 이런데 평민처럼 해구 땡기는데 가만이 보니깐 밤
중에 슬슬 들다 보니깐 그 뭐 문간에서 저 안에서 춤을 추는게 비거
던요 그래 이상스럽다 그래 한군데선 노래를 불러요 또 한군데선 곡
을허구 그래참 뽕일두 다만타 이래군 인제 짚을 차저 가주구 불렀죠,
대간절 이게 무슨 일이요 당신넨 하난 중은 곡을허구 또 남자 절문사
람은 노랴 불루구 노인은 춤을 추셨는데 그래 대간절 무슨일이요, 그
래니깐 아 참 기가막힌 일이죠 이래거던요, 게 왜 그러우 그래니깐
아 우리 마누라 오늘이 친치요 아 그래 뭐 돈두없구 아무것두 없서서
우리 자부가 그 머릴작구 승이 됐소 말야 머릴작구 승이 돼서 그 머
릴 팔어서 제를 지내느냐구 아 그 우리 자부는 곡을허구 우리아들은
조아서 노랴 불루구 나는 춤을 쳤소, 하이 하 그래구 허드래요 그래
그래서 그게 “승가 상가 노인곡이라” 이랬다구 그럭케 해놨다구 그래
더군요 간단해요, 그래서 가만이 보니깐 효자다 말이죠 아휴 그래 그
우떻게 이름승명을 알아가주구 너 아무때 그저 나한텐 들어 오너라
그랬는데 그 어느 대신한태 예길 해가주구 한자리 미관말직을 하날
줬대요, 그래구 그 여자를 효자상을 못해구 효자를 봉해구 그랜집이
있다구 그랬서요, 그거 간단해요 -----